舊譯仁王經 口訣의 構文論的 양상

박 진 호*

본고는, 1970년대에 발견되어 한글 창제 이전 국어의 모습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온 舊譯仁王經 釋讀口訣 자료에 나타난 언어 사실을, 구문론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세기 이후의 한글 자료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구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료에 나타나는 구문 유형을 꼼꼼히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舊譯仁王經은 물론 15세기 이후의 국어와 매우 다른 언어 사실을 보여 준다는 점에 그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의 다른 석독구결 자료나 고려말의 音讀口訣 자료와 비교할 때에도 독특한 특성을 보여 준다. 구역인왕경에 구결이 달려 있는 양상을 보면, 한문으로 된 원전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吐만을 附記한 것이 아니라, 구결토가 원전을 온전한 우리말 문장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석독구결 일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비슷한 구문 유형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 반복되는 잉여적인 구결토들을 생략하는 일이 많은 데 비해 구역인왕경에는 그런 구결토의 생략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구역인왕경의 구결 기입 태도가

*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逆讀의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우측 토를 읽다가 역독해서 올라와서 좌측토를 읽은 후 다시 역독해서 그 위의 좌측토로 올라가는 식의 복잡한 역독 양상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1) a. 復ンㄱ 有セナカ 他方セ 不矢リヒセ 可センㄱ、量ノ亢、衆、 <2:1-2>

b. 復ンㄱ 他方セ 量ノ亢 可センㄱ 不矢リヒセ 衆 有セナカ

이런 복잡한 역독 양상은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구결토 附記에 있어서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원문에 없는 어휘 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충해 넣는 경향에서도 볼 수 있다.

(2) a. 時十 無色界セ<u>ナ</u>ㄱ 量 無セㄱ 變ノㄱヒセ 大香花し 雨ラㄱム <2:14-15>

b. 六方ミセ<u>ナ</u>カ 亦ンㄱ 復ラ 是リ [如]トンヒハニカ 作樂<u>ノ尸</u>カ 亦ンㄱ 然センニ下 <3:11-12>

c. [乃ミ] 十方セ 恒河沙セ 佛土ミ十 至リ 有緣<u>ンㄱ</u>ラナㄱ 斯<u>モン巴ハ</u> 現ンヒハニト <3:6>

d. 十六大國王リ 意ミ十 國土し 護ノ今セ 因緣し 問白 [欲]ム ンニトラㄱのし ンム 知白ミロラㄱミ <u>ンㄱ乃</u> 吾ㄱ . . . 十地セ 行し 護ノ今セ 因緣ミ ノし 說白ラ亢セト <3:18-20>

(2a, b)의 '<u>ナ</u>'는 아직 그 독법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지만 유정물을 가리키는 의존명사임은 분명하다. 이 의존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無色界ㄱ', '六方カ'와 같이 구결을 달지 못할 이유가 없으나, 여기서 굳이 '<u>ナ</u>'를 사용한 데에서 구결 기입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

다. (2b)의 '作樂ノ尸カ', (2c)의 '有緣ンフ ラナフ'도 마찬가지이다. '作樂'이나 '有緣' 자체를 유정 명사로 파악하여 '作樂カ', '有緣ラナフ'과 같이 구결을 달 수도 있겠으나 굳이 구결토를 통해 좀더 분명히 표현하려 한 것이다. (2c)에서 부사 '斯'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2d)에서 접속어 'ンフ乃'를 넣은 데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구결 기입자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원문에 '有'자 등의 존재 동사가 없는데도 [존재]를 나타내는 대동사를 구결토에 보충해 넣기도 했다.

(3) a. 三生し ンロ 正位ミナ 入ンフヒカ 刂ヨ [者] 或ンフ 四生ミ 五生ミ [乃ヨ] 至リ 十生ミ ノレ ンロ 得ホ 正位ミナ 入ンフヒカ 刂ヨ ンナケ 聖人性し 證ンフヒカ 刂ケ 一切無量報し 得ヒカ 刂ナ <11:17-19>

b. 伏忍し 得ヒカ 刂ケ [者] 空ミ 無生ミ ノ仝七 忍し 得ヒカ 刂ケ [乃ヨ] 至リ 一地ミ 十地ミ ノ仝七 不可說七 德行し ンフヒカ 刂ナ <14:15-16>

(3a)는 "三生을 하고서 正位에 들어간 이도 있고, 四生에서 十生에 이르기까지 하고서 正位에 들어간 이도 있으며, 聖人性을 證한 이도 있고 일체 無量報를 얻은 이도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고, (3b)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 준다. 한문 원문에는 존재 동사가 없으나 문맥상 존재 동사를 보충해 넣어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으며 이것이 구결토로 드러난 것이다. 계사 '-이-'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15세기 이후에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4) a. 花上ミナ 皆七 量 無七フ 國土リ 有七ろフム 一一國土ミナケ 佛ミ 及ハ 大衆ミ ノヲリ ンロろフム <2:4-5>

b. 今ンフ [於]我ラ 前ミナ ンミ 大師子吼し ンナト <11:22>

c. 大覺世尊フ 前ラ 已(ヨ) 我ヲ 等ンフ 大衆ラ [爲]ヨヤ 二十九年

ᄀᆞᆫ ᄉᆞᆷ下 摩訶般若波羅蜜ᄉᆞ 光讚般若波羅蜜ᄉᆞ ᄀᆞᆮᆞ 說ᄀᆞᄒᆞᄂᆞᆯᄉᆡ <2:20-23>

(4)는 원문에 존재 동사가 없는데도 'ᄒᆞ-'를 존재의 대동사로 보충해 넣은 예이다. (4a)는 "하나하나의 국토에마다 부처와 대중 등이 있는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ᄉᆞ-'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문맥상 명확하다. (4b)의 '前ᄀᆞᆫ ᄉᆞᆷ'는 15세기 국어 같으면 '알퓌셔' 정도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셔'는 존재 동사 '이시-'의 활용형이 문법화된 것이다. (4b)에서 'ᄉᆞᆷ'가 '-셔'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곳의 'ᄉᆞ-' 역시 존재를 나타내는 대동사라고 볼 수 있다. (4c)에서는 주어가 존칭 체언이기 때문에 'ᄉᆞᆷ' 대신에 'ᄉᆞᆷ下'가 쓰인 것이다. (4)에 나타난 존재의 대동사들도 적극적인 구결 기입 태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구역인왕경에 나타난 특징적인 구문 유형 몇 가지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구역인왕경에서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구문으로 명사구 나열 구성이 있다.

(5) a. 量 無ᄀᆞᆨ 菩薩ᄉᆞ 比丘ᄉᆞ 八部ᄉᆞ ᄀᆞᄉᆞᆨᄀᆞᆫ 大衆ᄅᆡ 有ᄒᆞᄂᆞᆯᄉᆡ <2:3-4>

b. 次第ᄆᆞᆫ 居士ᄅᆡᄃᆞᆫ 寶ᄉᆞ 蓋ᄉᆞ 法ᄉᆞ 淨名ᄉᆞ ᄉᆞᆷᄃᆞᆫ 等ᄉᆞᆫᄀᆞᆨ 八百人ᄅᆞᆫ 問ᄂᆞᆫᄃᆞᆺ <3:1-2>

c. 或ᄉᆞᆫᄀᆞᆨ 四生ᄉᆞ 五生ᄉᆞ [乃ᄋᆞ] 至ᄅᆡ 十生ᄉᆞ ᄀᆞᆮᆞ ᄉᆞᆫᄅᆞ 得ᄒᆞᆷ 正位ᄀᆞᆫ 入ᄉᆞᆫᄀᆞᆨ ᄇᆡᄀᆞᆫ ᄅᆡᄒᆞᆷ ᄋᆞᄂᆞᆫᄃᆞᆺ <11:18>

명사구를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접속 조사로는 '-ᄉᆞ(여)'와 '-ㅅ(과)'가 있다. 한글 문헌에서는 거의 항상 '-과'가 사용되고 '-여'는 매우 드문데 비해, 구역인왕경을 비롯한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여'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여러 개의 명사구를 '-여'에 의해 접속한 다음에 항상 뒤 아우름의 동사 'ᄒᆞ-'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5a)의 'ᄀᆞᆮᆞᆨᄀᆞᆫ'은 뒤 아

우름의 동사 'ᄒᆞ-'와 선어말어미 '-오-', 동명사 어미 'ᄆᆞ', 의존명사 '이', 속격 조사 '-ㅅ'이 결합된 것인데, 접속된 명사구들과 뒤 아우름 명사 '大衆'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5b)에서는 'ᄂᆞᄆᆞ(홇) 等ᄂᆞᄆᆞㄱ(다ᄒᆞ신)'이 접속된 명사구들과 뒤 아우름 명사 '八百人'을 연결해 주고 있다. (5c)의 뒤 아우름 표현 'ᄂᆞᄂᆞᆫ'은 'ᄂᆞᄉᆞᆫ(호릴)' 또는 'ᄂᆞᄆᆞᆫ(홇올)'에서 'ᄉᆞ' 또는 'ᄆᆞ'이 표기상 생략된 것이다. 다른 석독구결 자료와 비교할 때 구역인왕경에는 이 구문에서 'ᄉᆞ' 또는 'ᄆᆞ'의 생략이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

(6) a. 空法ㅅ 四大法ㅅ 心法ㅅ 色法ㅅ [如]ㅣᄂᆞㄱᄅᆡᄀᆞ 相續假法ㄱ 一非矣ᄒᆞ 異 非矣ᄒᆞ ᄂᆞᄂᆞㅣ <14:6-7>

b. 等ㅅ 慧ㅅ 灌頂ㅅㄴ 三品士ㄱ <11:1>

c. 菩薩ㄹ 四生ㄴ 化ᄂᆞᄆᆞᆷ 色ᄂᆞ 如ᄂᆞ ᄂᆞᄉᆞㅅ 受相行識ᄂᆞ 如ᄂᆞ ᄂᆞᄉᆞㅅ 衆生我人常樂我淨ᄂᆞ 如ᄂᆞ ᄂᆞᄉᆞㅅ 知見壽者ᄂᆞ 如ᄂᆞ ᄂᆞᄉᆞㅅ 菩薩ᄂᆞ 如ᄂᆞ ᄂᆞᄉᆞㅅ 六度四攝一 . . . 觀ᄂᆞ 不多 ᄂᆞᄒᆞᄅᆡᄂᆞㅣ <3:23-25>

(6)은 '-과'에 의해 명사구들이 접속된 경우이다. '-여'와 달리 '-과'에 의해 명사구들이 접속될 때에는 (6a)에서 보듯이 뒤 아우름 표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6b)에서 보듯이 15세기 국어에서처럼 접속되는 마지막 명사구에도 '-과'가 붙으며 그 뒤에 각종 조사가 붙을 수 있다. (6c)는 '-여'에 의해 형성된 접속 명사구들이 다시 '-과'에 의해 접속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구역인왕경에는 비유 구문도 많이 보인다.

(7) a. 有ㅅ 無ㅅㄱ 本ᄆᆞㅁ 自ㅋ 二ᄅᆡㄱ矣 譬のㄱ 牛ㅋ 二角 [若]ㅣᄂᆞᄀᆞ <15:3>

b. 世諦ㄱ 幻化ᄆᆞ 起ᄂᆞㅁㄱ 譬のㄱ 虛空ㄴ 花 [如]ㅣᄂᆞᄀᆞ 影ᄂᆞ 三ᄀᆞㄴ 手ㄹ 無ᄂᆞㄱㄷ ᄂᆞᄉᆞ [如]ㅣᄂᆞᄀᆞ ᄂᆞㄱ ᄂᆞ <15:7>

(8) a. 時十 無色界ㄴ千ㄱ 量 無ㄴㄱ 變ᄂᆞㄱㅂㄴ 大香花ㄴ 雨ㄹㄱᆷ 香

ㄱ 車輪 [如]ㅣㅅᄒᆞ 花ㄱ 須彌山王 [如]ㅣㅅᄂᆞㄱᄉᆞ 雲 [如]ㅣㅅᄋᆞ 而ᄆᆞ 下ㅅㅁㅌㅣㅅᄀᆞ <2:14-15>

b. 佛ㄱ . . . 方ㄷ 蓮花師子座上ᄋᆞㅓ 坐ㅅ白ᄒᆞㄱᄆᆞ 金剛山王 [如]ㅣㅅㅁㅎㅂㄴㄱ <3:13-14>

c. 大王ㅜ 若ㄷ 菩薩 上ㅓ 見ᄒᆞ尸 所ᄋᆞ [如]ㅣㅅㄱ 衆生ㄱ 幻化ㅣㅁ 皆ㄷ 是ㅣㄱ 假誑ㅅㄱᄉᆞ 空中ᄋᆞㄷ 花 [如]ㅣㅅᄂᆞㄱㅣㅁ <14:11-13>

(9) a. 今ㅣ [如]ㅌ 異ㅅㄱ 無ㄷㄴᄀᆞ <2:5-6>

b. 諦ㅣ 聽ㅎ 諦ㅣ 聽ᄀᆞ 善ᄀᆞ 之ㅣ 思ㅅᄒᆞ 念ㅅᄒᆞㅅᄀᆞ 法ㅣ [如]ㅌ 修行ㅅᄀᆞ ㅅᄂᆞᄋᆞ <3:19>

c. 十住菩薩ㅅ 諸ㄴㄱ 佛ㅅㄷ 五眼ㄱ 幻諦ㅣ [如]ㅌ [而ᄆ] 見ㄴㅏㄱㅣㄴㅏㅣ <14:13>

(7)에서처럼 원문에 '譬'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8)에서 보듯이 '譬'자가 없어도 '如'자나 '若'자만으로 비유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 '如'자나 '若'자는 언해 문헌에서 거의 항상 'ᄀᆞᆮᄒᆞ-'로 언해되고 '다ᄒᆞ-'는 극히 드문 데 비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대개 '다ᄒᆞ-'로 해석되었다. '다ᄒᆞ-'의 표기는 문헌에 따라 변이가 있는데, 구역인왕경에서는 '如ㅣㅅ-'로, 기타 문헌에서는 '如ᄎᆞㅅ-'로 표기된다. '如'자가 용언이 아니라 "-처럼"을 뜻하는 介詞로 쓰일 때, 구역인왕경에서는 '如ㅌ'으로 표기되고, 기타 문헌에서는 '如ᄎᆞ'로 표기된다. 전자는 'ᄀᆞᆮ'으로, 후자는 '다'로 읽을 수 있다. (9)에서 보듯이 이 'ᄀᆞᆮ'이 대격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구역인왕경에 자주 나타나는 구문 유형으로 이유/원인 구문이 있다.

(10) a. 一切法 空ㅅㄱ ᄋᆞㅣ 以ᄒᆞ ᄋᆞㅁ 故ㅅ 空ㄱ 空ㅅㄴㅏㅣ <15:13-14>

b. 何以故ㅇㅣㄱ 般若ㄱ 無相ㅅㄱ 二諦ㄱ 虛ㅣᄒᆞ 空ㅣᄒᆞ ㅅㄱ ㅅㄱㅣ ᄋᆞ ㅁᄉᆞ <15:14-15>

c. 等ㅅ 慧ㅅ 灌頂ㅅㄷ 三品士ㄱ 前ㅋ 餘ㅅㄱ 習ㅣㄱ 無明緣ᄉᆞ 無明 習相ㅣㄱ 故ㄷㅅㄱㅌㄷ 煩惱ᄉᆞ ㅅㅣ 除ㅅㄷㅌᄒᆞㄱㅇㅣㄱ 二諦理ㅣ

窮ㅣ 一切之七 盡ㅣ ᄀᆞᆫ의ᄆᆞᆯ리ᄅᆞ <11:1-2>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절은 동명사 어미 '-ㄴ', 의존명사 'ᄃᆞ', 구격 조사 '-로'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유/원인절은 결과절보다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다. (10a)는 이유/원인절이 앞에 나온 예인데 'ᄃᆞ' 앞에 동명사 어미 '-ㄴ'이 표기상 생략되어 있다. (10b, c)는 결과절이 앞에 오고 이유/원인절이 뒤에 오는 구문 유형을 보여 준다. (10b)는 (10a)에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인데, 결과절을 일단 종결지어 놓고, 현대국어의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접속 표현 '何以故의ᄀᆞ'을 통해 이유/원인절과 연결하고 있다. (10c)는 '何以故의ᄀᆞ'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결과절을 '-ᄀᆞ의ᄀᆞ(ㄴᄃᆞᆫ)'으로, 이유/원인절을 '-ㄴᄃᆞ로'로 표현하고서 이 둘을 주술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일종의 분열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b, c)에서 보듯이 이유/원인절 '-ㄴᄃᆞ로' 뒤에 조사 '-여'나 계사 '-이-'가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이 특이하다. 이런 구문은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도 나타난다.

命名 구문은, 금광명경, 유가사지론, 화엄경소만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예가 발견된다.

(11) a. 婆羅門ㅅ 刹利ㅅ 毗舍ㅅ 首陀ㅅ ᄂᆞᄅᆞ 神我等ᄋᆞᆫᄀᆞ 色心ㅣ 名ᄒᆞ [爲]幻諦ㅅ ᄂᆞᄒᆞᄅᆞᄀᆞᆫ <14:1-2>

b. 大王ᄒᆞ [是]ㅣ 故ᄆᆞ 佛佛ㅣ [於]世ㅓ 出現ᄋᆞᆫᄃᆞᄒᆞ 衆生ㅣ 爲人ᄋᆞᆫᄃᆞᄑᆞᄋᆞᄆᆞ 故ᄂᆞ 說ᄒᆞᄉᆞ 三界ㅅ 六道ㅅ ᄂᆞᄉᆞᆫ 名字ㅣ 作ᄋᆞ白ᄅᆞᄀᆞㅣ 是ㅣ 名ᄒᆞ 無量名字ㅅ ᄂᆞᄒᆞᄀᆞㅅ <14:4-6>

c. 一 非ᄋᆞᆨᄀᆞᆫ 異 非ᄋᆞᆨᄎᆞᄅᆞ 故ᄎᆞ 名ᄒᆞ 續諦ㅅ ᄂᆞᄒᆞᄅᆞᄀᆞᆫ 相待假法ㅣ 一切之七 名ᄒᆞ 相待ㅅ ᄋᆞᄀᆞᆫ 亦ᄋᆞᆫᄀᆞ 名ᄒᆞ 不定相待ㅅ ᄂᆞᄒᆞᄀᆞㅅ <14:8-9>

d. 因緣ᄆᆞ 故ᄂᆞ 誑有ᄋᆞᄂᆞᄀᆞㅣᄀᆞᆫ 幻化ㅣ 幻化ㄴ 衆生ㅣ 見ㅏᄅᆞ 名ᄒᆞ 幻諦ㅅ ᄂᆞᄒᆞᄅᆞᄀᆞᆫ (幻化ᄒᆞㅓ ᄋᆞᄒᆞ 幻化ㅣ 見ㅏᄅᆞ 衆生ㅋᄂᆞᄀᆞㅣ ᄋᆞᄂᆞ 名ᄒᆞ 幻諦ㅅ ᄂᆞᄒᆞᄅᆞᄀᆞᆫ) 幻師ㅣ 幻法ㅣ 見ᄑᆞᄋᆞᆨᄂᆞᄋᆞᄒᆞ 諦實ᄆᆞ ᄋᆞᄆᆞᄀᆞ 卽

ㄹ 皆ㄷ 無ᄉᆞᆨᄆᆞᄫᆞᄃᆡ ᄉᆞᄆᆞᆫᄃᆞᆫ 名ᄒᆞ [爲]諸佛ㄷ 觀ᄉᆞ ᄂᆞᄒᆞᄆᆞᆫ <15:8-10>

(12) a. 一切法ㅣ 皆ㄷ 緣ᄆᆞᆷ 成ᄉᆞᆨᄆᆞᄉ 假成衆生ᄉ 俱時ㄷ 因果ᄉ 異時ㄷ 因果ᄉ 三世ㄷ 善惡ᄉ ᄂᆞᆷᄌᆞㅣ 一切ᄋᆞㄷ 幻化ᄀᆞᄐᆞᄀᆞᄆᆞᄆᆞᄆᆞ 是ᄉᆞᆫ 幻諦ㄷ 衆生ᄉᆞᆫ ᄂᆞᄒᆞᄆᆞᄂᆞᆫᄃᆡ <14:10-11>

b. 聽ᄂᆞᆫᄃᆞ 無ㄷᄆᆞᆫ 說ᄂᆞᆫᄃᆞ 無ㄷᄆᆞᆨᄋᆞᆫᄉᆞᆫ 卽ㄹ [爲]一ᄀᆞᄇᆞㄷ 義ᄉᆞᆫ ᄉᆞᆷᄆᆞᆫ 二ᄀᆞᄇᆞㄷ 義ᄉᆞᆫ ᄂᆞᄒᆞᄆᆞᆨᄋᆞᆫ <14:21-22>

c. 此ᄀᆞ 無二ᄉᆞᆨᄋᆞᆫᄉᆞᆫ 通達ᄉᆞᄒᆞᄂᆞᆨᄆᆞᆨᄉᆞᆫ 眞ᄒᆞ 第一義ᄒᆞᆫ 入ᄉᆞᆨᄒᆞᄂᆞᆨᄆᆞᄉᆞᆫ ᄂᆞᄒᆞᄂᆞᆫᄃᆡ <15:6>

명명 구문은 도식적으로 'X를 이름하여 Y라고 한다' 정도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름하여'에 해당하는 명명 동사는 (11)에서 '名ᄒᆞ'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하(잃-아)' 정도로 읽을 수 있다.[1] (12)에서 보듯이 이 명명 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이)라고'에 해당하는 명명 조사는 '-ᄉᆞ(여)'로 나타난다. 15세기 이후에는 볼 수 없는 요소이다. 피명명어라 할 수 있는 'X를'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개 '명사+ᄂᆞᆫ' 또는 '명사절+ᄂᆞᆫ'로 나타나나, (11c, d)에서 보듯이 '동사구+ㄹ(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오'의 정체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음으로 인용 구문을 살펴보겠다. 구역인왕경의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法會의 정황을 설명하는 지문 부분도 있지만, 부처와 大衆, 부처와 波斯匿王 사이의 대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 구문이 빈번히 등장하며, 피인용문의 길이가 매우 긴 경우도 있다.

(13) a. 爾ᄉᆞᆫᄃᆞ 時ᄒᆞ 諸ㅣ 大衆ㅣ . . . 各ᄒᆞᄉᆞ 相ㄹᄆᆞᄃᆞㄹ 謂言ᄉᆞᄂᆞᄒᆞᄃᆞ "大覺世尊ㅣ . . . 光讚般若波羅蜜ᄉ ᄂᆞᄂᆞᆫ 說ᄒᆞᄂᆞᆨᄒᆞᄂᆞㄹᄒᆡ 今日ᄒᆞᆫ 如來ᄋᆞᆫ 大光明ᄂᆞᆫ 放ᄉᆞᆫᄃᆞᄐᆞㄹᄀᆞᄂᆞㅣ 斯ᄆᆞᄉᆞᆫᄇᆞᆫᄂᆞ 何ᄃᆞᆫᄉᆞᆫ 事ᄂᆞᆫ 作ᄉᆞᆫᄃᆞᄒᆡ

1) '일허'로 읽을 수도 있겠으나 다른 문헌에 '名下'로도 나오는 점을 고려하여 '일하'로 읽어 둔다. 동사 '*잃-'은 명사 '일훔', 합성동사 '일ᄀᆞᆯ-' 등으로부터 재구할 수 있다. 李基文(1991: 69-70) 참조.

ᄉᆞᆫᄃᆞᆨᄀᆞᆯ ᄅᆡᄒᆞᄉᆞᄒᆞᆫᄃᆞ" ᄉᆞᆫᄇᆞᄒᆞᆫᄃᆞᆫ <2:19-23>

b. 時十 波斯匿王ㄱ 言ᄃᆞᆫᄑᆞ "善ᄉᆞᆫᄃᆞᆨᄀᆞᆨ 大事ᄂᆞᆫ 因緣ᄆᆞᆫ 故ᄂᆞ ᄉᆞᆫᄃᆞᄅᆞᄃᆞᆨᄅᆡᄀᆞᆨ ᄃᆞᆺ" ᄉᆞᄒᆞ <3:20>

(14) a. 爾ᄂᆞᆫᄉᆞᆫᄀᆞ 時十 大王ㄱ . . . 佛十 白ᄒᆞ 言ᄃᆞᆫᄑᆞ "世尊ᄒᆞ 一切菩薩ㄱ 云何ᄂᆞᆫᄉᆞᆫᄀᆞᆫᄂᆡ 佛果ᄂᆡ 護ᄉᆞᆫᄃᆞᆺ 云何ᄂᆞᆫᄉᆞᆫᄀᆞᆫᄂᆡ 十地ᄂᆞᆫ 行ᄂᆡ 護ᄂᆞᆺᄉᆞᆫᄂᆞ 因緣ᄅᆡᄒᆞᄂᆡ ᄉᆞᆫᄅᆞᄃᆞᆺᄉᆞᆫᄃᆞ" <3:22-23>

b. 爾ᄂᆞᆫᄉᆞᆫᄀᆞ 時十 波斯匿王ㄱ 言ᄃᆞᆫᄑᆞ "第一義ᄂᆞᆫ 中ᄒᆞ十 世諦 有ᄂᆞᆫᄒᆞᄂᆡᄉᆞᆫᄅᆞᄃᆞᆺᄉᆞᆫᄒᆞ 不矣ᄅᆡᄃᆞᆨᄀᆞᆨᄒᆞᄒᆞ . . . 一ᄅᆡᄃᆞᆺ 二ᄅᆡᄒᆞᄂᆞᆫ[之] 義ㄱ 其事 [云] 何ᄂᆞᆫᄉᆞᆫᄅᆞᄒᆞᄃᆞ" <14:18-20>

(15) a. 佛ㄱ 言ᄃᆞᆫᄑᆞ "菩薩ᄅᆡ 四生ᄂᆡ 化ᄂᆞᄑᆞᄆᆞᆷ 色ᄉᆞ 如ᄉᆞᄂᆞᆺᄉᆞᆫᄉᆞᆫ . . . 菩薩ᄉᆞ 如ᄉᆞᄂᆞᆺᄉᆞᆫ 六度四攝一 . . . 觀ᄉᆞᆫ 不ᄒᆞᄂᆞᆺᄒᆞᄅᆡᄂᆞᆨᄂᆡ . . . " <3:23-25>

b. 佛ㄱ 諸ᄒᆞ 道果ᄂᆡ 得ᄂᆞᆨㄱ 實天衆ᄒᆞ十 告ᄃᆞᆫᄑᆞ "善男子ᄒᆞ . . . 善男子ᄒᆞ 其 說白ᄃᆞᆨㄱ 所ᄂᆞ 十四般若波羅蜜ᄅᆡㄱ 三忍ᄉᆞ 地地ᄒᆞ十 上中下ᄒᆞᄉᆞᆫㄱ 三十忍ᄉᆞᄂᆞᆺᄑᆞ 一切 . . ." <11:20-25>

c. ". . . 等人 慧人 灌頂人ᄂᆞ 三品士ㄱ . . . 是ᄅᆡ 故ᄆᆞ 我ㄱ 今ᄉᆞᆫㄱ 略ᄒᆞᆨ 佛ᄂᆡ 歡ᄉᆞᆫ白ᄅᆞᄐᆞᄃᆞᆨᄂᆡ" ᄉᆞᆫᄇᆞᄒᆞᆫᄃᆞᆫᄂᆡ <11:1-13>

d. " . . . 化ᄂᆞ 衆生ᄅᆡ 幻化ᄂᆡ 見ᄐᆞᄃᆞᆨᄅᆡᄒᆞ . . . 菩薩ᄅᆡ 衆生ᄂᆡ 化ᄂᆞᄑᆞ 爲 此 [若]ᄂᆡᄉᆞᆫᄂᆡ" ᄉᆞᆫᄃᆞᆫ <14:1-14>

(16) "大王ᄒᆞ . . . 文字記句ㄱ 一切ᄋᆞᄂᆞ 如ᄅᆡᄂᆞᆨᄂᆡ 若ᄂᆞ . . . 取ᄉᆞᆫᄂᆞᆨᄉᆞᆫㄱ . . . " <15:22-25>

인용 구문은 도식적으로 'X가 Y에게 말하기를 "Z"라고 하였다' 정도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a), (15b)에서처럼 화자 X와 청자 Y가 모두 명시될 수도 있지만, 화자 또는 청자가 누구인지가 맥락에 의해 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13b), (14b), (15a)에서는 청자가 생략되었고, (16)에서는 화자와 청자 모두 생략되었으며, 뒤에 볼 (18)에서는 화자가 생략되었다. '말하기를'에 해당하는 인용 동사는 동명사 어미 '-ᄑᆞ(ㅁ)'을 달고 나타난다. (16)에서는 인용 동사 없이 피인용문이 직접 도입되고 있다. 피인용문 뒤에 인용

동사의 대동사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4)에서 보듯이 생략될 수도 있다.

(17) a. 佛ㄱ 大王ᄃᆞ려 告ᄒᆞ샤ᄃᆡ "汝ㄱ . . . 法ᄋᆞᆯ [如]ᄒᆞ샤 修行ᄒᆞ시ᄂᆞᆫ 七佛ᄭᅴ 偈ㅣ 是 [如]ㅣᄒᆞ니ㅣ <14:20-23>

b. "相 無ᄒᆞ며 ᄇᆞᆯ 第一義ㄱ 自 無ᄒᆞ시ᄆᆞ 他作 無ᄒᆞ시ᄆᆞᄆᆞᆫ . . . 菩薩ᄭᅴ 觀ᄒᆞᆫ 亦ᄒᆞᄂᆞᆫ 然ᄒᆞᄒᆞ니ㅣ" <14:24-15:10>

c. 大王ᄒᆞ . . . 諸ᄒᆞᆫᄃᆡ 佛ㅣᄒᆞᆫᄃᆡ 如來ᄉᆞ [乃ᄋᆞ]至ㅣ 一切法ᄉᆞᄋᆞᆫ 如ㅣᄒᆞᆫᄃᆡ ᄋᆞᆫ… 故ᄋᆞᄉᆞ" <15:11-20>

(18) 佛ᄭᅴ 白ᄉᆞᆸ 言ᄒᆞᆫᄃᆡ "[云]何ᄒᆞ시ᄉᆞ "十方ᄭᅴ 諸ᄒᆞᆫᄃᆡ 如來ᄉᆞ 一切菩薩ᄉᆞᄋᆞᆫ 文字ᄋᆞᆯ 離 不多ᄒᆞᄉᆞᆸ [而…] 諸ㄱ 法相ᄋᆞᆯ 行ᄒᆞᄂᆞᆫ다ᄒᆞ니ㅣ" ᄒᆞ로ᄆᆞᆫ ᄅᆞ" <15:21-22>

(17), (18)은 피인용문 속에 다시 인용 구문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보여 준다. (17)은 부처가 波斯匿王에게 하는 말인데 피인용문 중간에 七佛偈에 해당하는 부분 (17b)가 들어가 있다. (18)은 波斯匿王이 부처에게 하는 말인데 피인용문 속에 인용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

(19) 謂ᄂᆞᆫ 非矣ㅣㅣ 二諦ㅣ 一ㅣㅣ ᄒᆞᄆᆞᆫ <15:5>

(19)는 특이한 인용 구조를 보여 준다. 피인용문 앞의 인용 동사에 '-ᄆᆞᆷ'이 결합되어 피인용문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謂ᄂᆞᆫ(닐오리) 非矣ㅣㅣ(안디이다)'로 종결하고서, '二諦ㅣ 一ㅣㅣ'라는 피인용문과 인용 대동사를 제시하고 있다. '크실셔 君王ㅅ 德이여'<內訓 2下:30>의 예처럼 서술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 의미상의 주어에 감탄 조사를 결합시켜 뒤에 제시하는, 일종의 도치 구문이다.

지금까지 구역인왕경 구결 기입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예 및 몇 가지 구문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구역인왕경을 포함한 석독 구결 자료의 국어사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한다. 이들 자료의 가치가 깊이 인식되면서 최근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형태에 치우친 논의에서 벗어나 문맥과 내용까지 충분히 고려하는 구문론적, 텍스트언어학적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참고논저

南星祐, 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口訣學會, 195-251.

南豊鉉(1985),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年代", 東洋學 15,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9-40.

南豊鉉 · 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6,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68.

沈在箕(1975),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國立中央博物館, 19-35.

李基文(1991), 「國語 語彙史 硏究」, 東亞出版社.